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6년 4월

선교편지 제 88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외출 중에, 저녁이 되어 해가 기울어 지면 마음이 매우 조급해 지기 시작 합니다. 밤 길에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밤 길을 비추어 주는 네온 사인이나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도로 옆에 위치한 집이나 건물에서 세어 나오는 불 빛에 의지하여 운전을 하다보니, 밤 운전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헤드 라이트를 켜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도 있고, 브레이크 라이트가 동작하지 않는 앞차가 불규칙한 속도로 힘들게 하고, 건널목이 아닌 곳에서 사람이나 개들이 지나 가고, 도로가 파인 곳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가야 하는 곡예 운전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는 제가 잡고 있지만, 옆 자리의 아내도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주변 상황을 계속 중계 방송 하며 같이 위험을 헤쳐 나가야만 합니다.

아직 개발이 필요한 디고스 지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디고스 시내에는 밤에 위치를 확인할 만한 네온사인이나, 밤 운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로등이 전무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 가운데 운전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디고스에서는 밤 길을 무리해서 운전하기 보다는, 차라리 잠자리는 불편하지만 인근 숙소에서 밤을 지내고 안전하게 새벽에 출발할 때도 있습니다.

작년초 디고스 예일 교회를 건축하면서 시공업자를 이해 시켜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 위에 설치한 십자가에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전등을 연결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빨간등의 십자가이지만, 이곳은 아직 생소하여 시행착오 끝에 십자가에 전등을 설치 했습니다. 마침내 이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어두운 밤에도 십자가와 교회 앞면이 불 빛으로 비추도록 해서, 한밤 중에도 멀리서 교회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마을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하늘에 십자가 전등이 켜진지 일년이 넘는 지난 달, 원치않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새벽 한시경, 주먹보다 큰 돌들이 예배당을 향하여 날아 들어와 10장 이상의 유리창이 깨지고, 건물 벽도 상처를 입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회 사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현지 사역자가 뛰쳐나와 고함을 침으로 인하여 그나마 더 큰 피해를 막게 되었습니다. 4~5명의 남자들이 술에 취했는지, 마약에 취했는지 즐거움에 환호성을 지르며 교회로 돌을 던지고는 혼비백산 도망쳤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어 마을 책임자와 경찰을 불러 확인을 시켰는데, 이구동성으로 동네 청년들이 아닌 술에 취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교회 불 빛을 보고 장난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차후 동일한 사고를 방지하려면, 밤에 교회가 보이지 않도록 십자가 및 옥외 전등을 모두 끄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떠나 갔습니다.

마치 교회를 향하여 수많은 총알이 난사된 것처럼 유리창은 물론 교회 벽에 많은 상처가 있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이 되기전 교회 청년들을 불러서 대대적인 청소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부스러진 유리 조각도 꼼꼼하게 잘 치웠습니다. 마침내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러 온 교인들이 교회에 일어난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 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가 꼭 필요하다며 교인들은 도리어 저를 안심시키려 애를 씁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교인들이 신속하게 동원이 되어 일주일도 되지않아 상처가 난 교회 벽을 모두 수리하였고, 파손된 유리창도 새 것으로 교체를 하여 옛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낮뿐만 아니라 한 밤중에도 십자가와 교회가 모습을 드러내고 이 지역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 6:14)

 2016년 3월 13일 주일, 감사와 감격 가운데 디고스 예일 교회의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외에는 도저히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교회에서 매주 즐겁게 감당했던 일중에 하나는, 주일 예배가 시작 되기 1시간 30분전 부터 교회 문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로 오는 현지 교인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일입니다. 교인들을 기다릴 때에 제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잃어버린 양을 간절히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렵듯이 이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년간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을 불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교회를 이루게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신앙 생활을 하게 하시고, 마침내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기적 중에 기적 입니다.

창립 기념 예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찬양팀에 속한 청년들을 포함하며 7명이 기념 주일 전 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 찬양팀에 속한 청년 중에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장학생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여자 청년은 오른손 손가락이 선천적으로 네 개밖에 없는데, 기타와 키보드를 연주하며 찬양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하나님께서 주신 조그마한 달란트를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와 같이 열심히 가꾸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창립 기념 주일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직접 작곡, 작사하여 올려 드림으로 듣는 모두에게 큰 은혜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두명의 교인이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눈물로 범벅이 된 감사의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디고스 예일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고 감사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중에 감정이 격해질 것을 미리 알고, 기도하며 원고를 써와서 읽기만 하도록 부탁을 했는데, 준비한 내용을 두어줄 읽더니 감사의 눈물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셨는지 모두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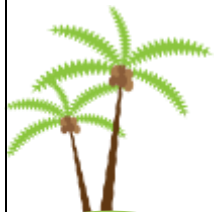
3개의 성경공부반에 속하여 단계별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교인들이 모두 함께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보면,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심한 경제적인 문제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다양한 질병은 기본입니다. 남편이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하여 집을 나가버려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부인, 스무살도 되지 않은 어린 딸이 남장을 하고 다니더니 다른 '여자'와 살겠다고 가출을 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직 적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 시켜주시리라는 소망으로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장학생들을 포함한 청년들도 거의 한 달 이상을 연습하여 다양한 워십 댄스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전에는 청년들이 하는 모든 준비에 저희가 많은 참견(?)을 했었습니다. 이제 막 신앙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곡을 선정하는 일부러 아슬아슬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워십 댄스가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지, 옷은 어떤 것들을 입고 하는지 등 시시콜콜하게 간섭을 했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찬양과 워십댄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뿐만 아니라, 의상과 소품도 직접 준비해서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학교 어린이들도 언제 연습을 했는지 4곡이나 되는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시상도 있었고, 예배 후에 전교우들에게 선물도 나누어 주고, 정성껏 준비한 푸짐한 만찬을 나누며 모두 함께 창립 1주년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기쁨으로 주일을 보냈습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 창립 1주년이 되면 꼭 하고 싶었던 개인적인 가장 큰 소원은 전 교인이 참여하는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면서도, 안타깝게도 그동안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아직 한번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성찬의 의미를 아는 교인이 전체 교인에 비하여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례자들만 앞 자리에 앉게해서 성찬식을 행할까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 끼리'만의 예식이 되어, 도리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일로 생각이 되어 아쉽지만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창립 1주년을 지나면서 '성찬식'은 행하지 못했지만, 디고스 예일 교회가 오고 오는 세대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늘 기도해 주시고, 풍성하게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엡 1:3)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